

대학 교수가 바라본 고등교육에서의 대학생 핵심역량: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김동일(金東一)** · 오헌석(吳憲錫)*** · 송영숙(宋永淑)****
고은영(高恩英)***** · 박상민(朴尙玟)* · 정은혜(鄭恩惠)**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단계에서 육성되어야 할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각하는 대학생 핵심역량과 대학교육을 통하여 그러한 핵심역량이 어느 정도 양성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전체적인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능력,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가치관 형성 및 태도가 도출되었고, 도출된 7가지 핵심역량의 적절성에 대해 설문에 참여하였던 대부분의 교수들이 동의하였다. 둘째, 도출된 7가지 핵심역량의 중요성 순위로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창의성, 가치관 및 태도 순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셋째, 대학교육을 통하여 길러지고 있는 핵심역량으로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이 인식되었지만,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는 핵심역량으로는 가치관 및 태도,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등으로 밝혀졌다.

■ 주요어 : 고등교육, 대학생, 핵심역량, 서울대학교

* 이 연구는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참여 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송영숙 /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서울시 관악구 신림 9동 산 56-1,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연구소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 Tel: 02)880-4484/ Email : songyoungsook1@gmail.com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특수교육 전공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I. 서론

급변하는 기술, 매일 같이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정보, 세계화는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한 사람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맞게 자신의 지식, 기술 및 태도,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맥을 같이 하는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사회 및 국가의 성장에 가치나 자본으로서의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식을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실천적인 능력으로써 역량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손민호, 2006; Rychen, 2002).

최근 교육과 관련된 국내·외의 역량에 관한 논의도 사회·생태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역량의 중요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박보영, 2008; 윤현진 외, 2007; 이병식·최정윤, 2008). 주지주의적 교과중심 교육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작금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교과가 아니라 역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소위 역량기반 교육 개혁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김안나 외, 2002; 소경희, 2006; 오현석, 2007; Grant, 1979).

역량이 주목을 받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 역량이 실제로 어떻게 육성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다소 혼재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역량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업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관련되거나, 초·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등교육단계의 대학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고등교육단계의 역량에 관한 연구도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기 보다는 문헌자료에 의존한 개념적 논의(박보영, 2008)이거나 직업능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정철영 외, 1998)라 하겠다. 핵심역량이 모든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 생애에 걸쳐 육성되어야 할 능력이라면, 고등교육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육성되어지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교수의 관점에서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엇이며, 현재 잘 길러지는 핵심역량과 현재 잘 길러지지 않고 있는 핵심역량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서울대학교를 분석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교육상황에서 서울대가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을 고려하였으며, 둘째 연구를 수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접근성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수가 지각한 대학생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생의 핵심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길러져야 하는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셋째, 대학생의 핵심역량 중에서 가장 잘 길러지고 있는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넷째, 대학생의 핵심역량 중에서 가장 잘 길러지지 않고 있는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핵심역량의 개념 및 성격

역량이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다소 모호하고 학자나 연구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Delamare Le Deist & Winterton, 2005). White(1959)는 높은 동기와 관련이 있는 개인적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역량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는 역량을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McClelland(1973) 역시 역량을 고성과자(high performer)들이 지니는 특성으로 정의하고, 직업수행능력을 예측하기 위해선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능 대신 역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역량은 주로 직업훈련 분야에서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간주되었으며,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들이 고안되고,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분석하는 역량모델링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직업 훈련 분야 혹은 기업교육에서 주로 논의되어 오던 역량이 학교교육에 도입되어 역량 관련 담론을 확산하는데 계기가 된 연구는 OECD의 DeSeCo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DeSeCo 프로젝트는 교육, 경제,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역량을 정의하고, OECD 참여국가의 젊은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DeSeCo, 2005).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특정한 맥락에서 기술과 태도를 포함하는 사회·심리학적 자원을 가동시켜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DeSeCo, 2005: 2)이라고 정의하였다. 아울러 역량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규정하였다(DeSeCo, 2005). 첫째, 사회와 개인을 위해 가치 있는 성과물이 산출되도록 기여하는 역량, 둘째, 다양한 맥락 속에 있는 중요한 요구에 개인이 부합하도록 돕는 역량, 셋째, 전문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개개인을 위해서 중요한 역량을 핵심역량이라고 개념화하였다.

DeSeCo 프로젝트의 역량 및 핵심역량의 개념은 기존 직업 훈련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직무 중심의 관점에서 고성과자의 특성을 의미하던 것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세계에서 개인이 성공하고 국가 및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핵심역량은 지식이나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고 태도와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며, 특정한 맥락의 특정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수역량을 의미하기 보다는 다양한 삶의 맥락에 걸쳐 모든 개인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다(소경희, 2006).

우리나라에서도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생애능력(life competency)에 관한 연구이다(김안나 외, 2003; 유현숙 외, 2002, 2004). 생애능력 연구에서 사용된 생애능력의 개념 역시 직업이나 직무관련 능력을 뜻하는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생애를 통하여 육성시켜 주어야 할 핵심능력'(유현숙 외, 2002)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을 발달단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생애에 걸쳐 요구되는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생애에 걸쳐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다양한 맥락 속에서도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성과 일반성을 갖지만 동시에 생애능력의 하위 요소들은 생애 단계의 시기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이나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상대성, 상황적 특수성을 갖는다고 하였다(유현숙 외, 2002).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핵심역량이 있고, 이것 외에도 생애단계별로 예를 들면 초등교육단계, 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하위요소로서 단계별 핵심역량이 있다는 것이다.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개인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만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단계별 핵심역량은 상대적이고 상황적 특수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2. 고등교육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급변하는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있으며, 특히 생애 단계별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다르다면 고등교육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엇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등교육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본 절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와 생애능력(life competency)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역량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DeSeCo 프로젝트는 광의의 핵심역량 개념에 기초하여 핵심역량을 세 가지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핵심역량들을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DeSeCo 프로젝트에 따르면,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다양화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개인적 성공과 사회적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든 개개인이 9가지 핵심역량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9가지 핵심역량들은 상황적 특수성이나 맥락에 따라 각각 요구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행동하기가 더

<표 1>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DeSeCo, 2005)

역량범주	핵심역량
상호작용적으로 도구사용하기	언어,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기술을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능력 팀으로 일하고 협동하는 능력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넓은 시각에서 행동하는 능력 인생 계획과 개인적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능력 권리, 관심, 한계와 요구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능력

요구되는 상황이 있는 반면, 어느 경우에는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각 각의 경우나 사례에 따라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9가지 핵심역량들의 조합이 그 정도나 수준면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생애능력 연구(김안나 외, 2003; 유현숙 외, 2002, 2004)에서는 모든 개개인이 생애를 통하여 육성시켜야 할 능력을 기초문해력, 핵심능력, 시민의식, 특수직업 관련 능력의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이 중 핵심능력은 초등교육단계와 고등교육단계를 거쳐 성인교육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습단계에 요구되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역량으로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인간관계능력을 제시하였다. 생애능력 연구(김안나 외, 2003; 유현숙 외, 2002, 2004)는 각각의 교육단계에 어떤 역량들이 요구되는지도 분석하였는데, 고등교육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7가지로 제시하였다(<표 2> 참조). 고등교육단계는 초·중등교육단계에서 습득된 기초 소양을 심화·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마련하며 장차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식이나 지적인 능력과 관련된 역량뿐만 아니라 전문적 직업준비능력과 개인적·사회적 관계형성 능력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OECD의 DeSeCo프로젝트나 한국교육개발원의 생애능력 연구 모두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DeSeCo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의 경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이라고 전제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고등교육단계에 국한된 핵심역량이 아니라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핵심역량이라고 하겠다. 생애능력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분석하였으나, 핵심역량의 길러지는 정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표 2> 생애능력연구에서 제시한 고등교육단계의 핵심역량(유현숙 외, 2002)

핵심능력	능력구성요인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분야에 대한 이론적 기초 • 전공분야 지식의 실용적 적용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사고력 • 단편적 지식의 종합 능력 • 예측과 추리력
의사소통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 • 기본문해력(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목표설정과 학습동기 • 자신감과 자존감 • 정보처리 및 기술 활용 능력 •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능력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비전제시 • 뚜렷한 주관과 추진력 • 구성원간 갈등조율 능력 • 책임감과 도덕성
문제해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 능력 •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의사 결정력 •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능력 • 사고의 유연성 • 독립심
협동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의견 교환과 합의점 도출 • 타인에 대한 지원과 신뢰 •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존중

III. 연구방법

직업훈련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직무나 직업과 관련된 협의의 핵심역량의 개념 대신 생애에 걸쳐 요구되는 광의의 핵심역량의 개념에 기초하여 고등교육단계(대학)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과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앞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는데 학부생의 핵심역량 및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행정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6개 단대별로 각 한명씩의 교수에게 참여 요청을 하였고, 모두 12명의 단과대학 학장단 소속 보직 교수가 참여하였다. 사범대학의 경우 참여를 요청한 보직 교수의 출장으로 인하여 이전 임기의 학장단 보직교수가 참여하였다. 따라서 총 13명의 교수들이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하였다. 단과대학별로 교수 한명씩 참여하였지만, 초점집단면접에서 소속 단과대학 전체 교수들의 견해를 대표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다른 교수들과 나누도록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목적 및 내용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는 설문지를 전자메일로 발송한 다음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총 1555명에게 보내졌고, 그 중 설문에 답변을 한 응답자의 수가 158명으로 10.16%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 참여 교수들의 배경정보는 다음<표 3>, <표 4>와 같다.

<표 3> 성별, 연령, 재직경력에 따른 설문 참여 교수 현황

구분	성별		연령				재직경력						
	남	여	만35~ 만40 미만	만40~ 만45 미만	만45~ 만50 미만	만50 이상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15년 미만	15년~ 20년 미만	20년~ 25년 미만	25년~ 30년 미만	30년 이상
명 (%)	131 (85)	23 (15)	12 (8)	38 (24)	38 (24)	70 (44)	35 (22)	35 (22)	29 (18)	25 (16)	14 (9)	13 (8)	7 (4)
계	154		158				158						

<표 4> 소속 단과에 따른 설문 참여 교수 현황

소속	참여현황(명/%)
인문대학	18(11)
간호대학	1(1)
경영대학	3(2)
약학대학	3(2)
법과대학	3(2)
생활과학대학	10(6)
수의과대학	0(0)
미술대학	3(2)
의과대학	29(18)
자연과학대학	13(8)
사범대학	20(13)
음악대학	2(1)
공과대학	24(15)
사회과학대학	11(7)
치과대학	7(4)
농업생명과학대학	11(7)
계	158

2. 조사도구

1)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교수들이 인식하는 학부생의 핵심역량을 조사하기 위해 먼저 핵심역량에 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뷰 가이드(interview guide)를 구성하였고, 교수 4명~5명이 참석하는 초점집단면접을 총 3회 걸쳐 각각 1시간가량 실시하였다. 핵심역량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참여교수들에게 핵심역량의 개념을 설명하고, 중등교육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오현석, in progress)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녹음되었고, 인터뷰 후에 연구에 참여하였던 박사과정 학생 1명과 석사과정 학생 2명에 의해 각각 전사되었다.

2) 핵심역량 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초점집단면접 결과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핵심역량 범주구성의 타당도를 묻는 3개 문항, 역량별 중요성 및 성취 정도에 관해 묻는 4개 문항, 역량의 변화 정도에 관해 묻는 2개 문항,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성별, 나이, 재직 기간, 소속 단과대학)를 수집하기 위한 4개 문항으로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 방법과 양적 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초점집단면접 자료는 기술적(descriptive) 분석(Tesch, 1990)에 기초하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의 전사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전자메일로 요약본을 송부하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를 실시하였다. 참여자 검토과정에서 1명의 교수는 송부된 요약본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한 후 회신하여 첨가된 의견을 전사 자료에 포함하였다. 이후 전사를 여러 번 읽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 다음, 세그먼트(segment)를 파악하였고,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인터뷰 가이드, 전사 자료를 참고로 분류시스템(categorization system)을 개발한 후, 분류시스템에 따라 세그먼트를 분류하였다. 분류시스템의 항목으로 '학부생에게 길러져야할 역량', '학부생에게 잘 길러지고 있는 역량', '학부생에게 잘 길러지고 있지 않은 역량', '10년 전과의 변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서울대가 노력해야 할 점', '단과대별 특징'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초점집단면접의 주요 목적이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도출하는 것이었으므로 '학부생에게 길러져야 할 역량'으로 분류된 세크먼트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다. 관련 문헌자료 검토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간의 심층 논의를 통해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과 핵심역량의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설문자료는 양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분석방법은 우선 각 항목별단순빈도 분포와 백분율을 계산하여 표본의 일반적 성향을 살펴본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소속 단과대학, 교수 재직 기간에 따른 응답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초점집단면접 결과

본 연구에서 초점집단면접은 설문 조사의 파일럿 연구(pilot test)로서 진행되었다. 학부생의 핵심역량을 도출하는 것이 초점집단면접의 주된 목적이었고, 학부생의 핵심역량에 관한 교수들의 다양한 견해를 면담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적(descriptive) 분석(Tesch, 1990)에 기초하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여, 8개의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하위범주능력을 구성하였다. 1차적으로 도출된 핵심역량은 '지적능력', '기초학문역량', '외국어능력', '의사소통능력',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능력', '인성'이었다. 하지만 핵심역량의 범주나 하위역량의 구분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관련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역량의 용어와 용어의 정의를 검토하고, 참여 연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하여 '지적능력', '기초학문역량', '외국어능력'이라는 용어 대신 '논리적 사고력',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능력'을 사용하고 하위범주능력을 수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다소 모호한 의미를 지니는 '인성'이라는 용어 대신 '가치관 및 태도'를 사용하고, 하위범주능력을 수정하였다. 1차적으로 도출된 핵심역량과 하위범주능력에 대한 수정 및 재수정을 거쳐 다음<표 5>와 같이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7가지 핵심역량과 하위요소를 분류하였다.

도출된 핵심역량과 하위범주능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교수들은 대체적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서울대가 전통적으로 학문적인 리더를 배출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대 학부생들이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인 듯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상황에 맞게 전공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나 의미가 달랐으며, 예컨대 의과대학의 경우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표 5>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핵심역량	하위범주능력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분야에 대한 이론적 기초 • 전공분야 지식의 실용적 적용
논리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통합적 사고력 • 분석력 • 합리적 판단력
학습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능력 • 정보처리기술 및 활용능력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고 • 적응력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능력 • 추진력 • 전체 조망 능력 • 도전정신
대인관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능력 • 협력적 관계 형성 능력 • 개방성
가치관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의식 • 도덕성 • 배려

저희가, 의과대학은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자기 전공교육을 하는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졸업하면 당장 환자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이 갖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능력의 중요성 역시 여러 교수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며, 특히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력이 강조되었다.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첫 번째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게 필요하겠다. ...요즘 통합적 학문세계 그런 말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전공을 하더라도 전공이 직업세계와 연결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회대에서 경제학을 본다면 경제학원리를 통해서 기업경제만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라 사회전체를 볼 수 있는 관점을 경제학적 논리를 통해서 키우는 건데. 통합적 사고능력이 특히 학부를 통해 키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능력이라는 것이 지능지수가 높다거나 두뇌가 우수하다는 의미보다는 각 전공분야를 접근하거나 분석하는 틀이나 관점을 정립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듯하였다. 또한 지적능력과 관련하여 학습능력 특히 외국어 능력의 중요성이 여러 교수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외국어능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는 좋아졌다면 이 말하고 듣는 것은 좋아졌는데, 쓰는 것은 형편없어졌어요. 그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독해능력은 완전히 지금 비상이에요. 독해능력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지성인으로서 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어 능력이 주로 영어와 관련된 능력을 의미하고 영어능력 중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의 향상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영어능력이 지적능력이나 학습능력과 관련되는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직업을 준비하고 다양화되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었다.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창의성 역시 여러 교수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창의성의 의미가 단과대학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듯하였다. 미술대학이나 음악대학의 경우는 창조나 재창조의 의미를 내포하였고, 이에 비해 다른 단과대학의 경우 유연성이나 적응력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특히 창의성 교육의 어려움이 여러 교수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노벨상수상자들이 와서 강연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창의력을 개발해라. 어렸을 때 잘 안되었잖아요. 대학 와서 창의력을 갑자기 개발하라 하면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은 일부 자연대 교수님들은 그래도 그것을 겨냥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죠.

리더십의 경우 가치관 및 태도 역량과 연관 지어 논의되어 편협한 엘리트 의식에 기초한 리더십보다는 사회 공헌이나 봉사의 역량을 갖춘 '서번트 리더십'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리더십의 하위범주능력으로 전체적인 조망능력이 강조되었는데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몇몇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리더가 갖추어야 할 조건,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 탁월해야죠. 그거 제대로 못하면 그거 리더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것 외에 다른 능력들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저는 전체를 보고 자기 자신만을 보지 말고, 사회 전체를 보고 해야 하는데 리더가 되가지고 자기 혼자만 보고 하면 사회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이익만 챙기고.

첫째, 지도자가 되려면 일단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지 동기부여도 되고 꿈도 꿀 수 있다. 그런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크게 볼 수 있는 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학교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교육이다.

한편, 정의적인 영역으로 대인관계역량과 가치관 및 태도가 제시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잘 길

러지지 않고 있는 역량들로 여겨지고 있었다. 먼저 대인관계역량의 경우 하위범주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이나 네트워킹과 연관 지어 논의되었는데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단 학생들을 보면 의사소통능력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자기 뜻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발표 능력을 신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더불어 사는 대인관계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자녀수가 이제 뭐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을 조금 저희가 키우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치관 및 태도와 관련하여 공동체 의식, 윤리성, 배려, 봉사 등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치관 및 태도를 강조한 교수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사활동, 타인을 배려하는 거 그리고 진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현대사회, 경쟁사회에 살면서 지능, 기술 이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원래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쪽이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울증, 자살들을 이야기 했는데 암만 뇌 쪽으로 뛰어나도 뭐합니까. 밑바닥에서 썩어 들어가면 다 넘어지는 것인데 서울대학교 전체 움직임이 그런 쪽으로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가치관 및 태도의 경우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학부생들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역량으로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이와 같은 역량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 설문 결과

1) 핵심역량의 적절성

도출된 7개의 핵심역량과 각 각의 하위요소가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결과는 다음<표 6>과 같다. 도출된 7가지 핵심역량의 적절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설문에 참여하였던 교수들의 70%이상이 '적절하다' 혹은 '매우 적절하다'의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한편, 교수들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논리적 사고력, 학습능력을 학부생의 핵심역량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비율이 10% 내외였으나,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 가치관 및 태도에 관하여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비율이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

<표 6>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적절성

핵심역량	응답자수(명) 및 응답률(%)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3(1)	11 (6)	67(42)	77(48)
논리적 사고력	0(0)	17(10)	52(32)	89(56)
학습능력	3(1)	6 (3)	78(49)	71(44)
창의성	3(1)	19(12)	55(34)	81(51)
리더십	6(3)	27(17)	52(32)	73(46)
대인관계 능력	2(1)	33(20)	62(39)	61(38)
가치관 및 태도	6(3)	22(13)	55(34)	75(47)

2) 중요도와 길러지는 정도에 따른 핵심역량의 순위

도출된 7가지 핵심역량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에 이어 핵심역량의 순위에 관한 교수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7가지 핵심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길러져야 하는 핵심역량을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하였던 교수들의 응답은 다음<표 7>과 같다.

<표 7> 학부생의 핵심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길러져야 하는 역량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역량 (응답률%)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26)	창의성 (23)	가치관 및 태도 (20)
	창의성 (26)	논리적 사고력 (20)	리더십 (17)
	가치관 및 태도 (18)	가치관 및 태도 (17)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15)

가장 중요하게 길러져야 할 핵심역량의 1순위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26%)과 창의성(26%)을 꼽았고, 2순위로는 창의성(23%), 논리적 사고력(20%), 그리고 3순위로 가치관 및 태도(20%), 리더십(1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가치관 및 태도나 리더십보다 전공분야의 지식과 창의성을 더 중요하게 길러져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7가지 핵심역량 중 현재 가장 잘 길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핵심역량을 잘 길러지는 순서대로 세 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하였던 교수들의 응답은 다음<표 8>과 같다.

<표 8> 현재 학부생에게 가장 잘 길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량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역량 (응답률%)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68)	학습능력 (41)	논리적 사고력 (41)
	학습능력 (24)	논리적 사고력 (39)	학습능력 (27)
	논리적 사고력 (6)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13)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11)

현재 학부생에게 잘 길러지고 있는 핵심역량을 묻는 문항에서 1순위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68%), 학습능력(24%)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학습능력(41%), 논리적 사고력(39%)으로, 3순위는 논리적 사고력(41%), 학습능력(27%)으로 나타났다. 모든 순위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능력, 논리적 사고력이 현재 학부생에게 잘 길러지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7가지 핵심역량 중 현재 가장 잘 길러지지 않는 핵심역량을 잘 길러지지 않는 순서대로 세 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하였던 교수들의 응답은 다음<표 9>와 같다.

<표 9> 현재 학부생에게 가장 잘 길러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량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역량 (응답률%)	가치관 및 태도 (39)	리더십 (29)	리더십(29)
	창의성 (27)	대인관계능력 (28)	대인관계능력 (25)
	대인관계능력 (16)	가치관 및 태도 (20)	가치관 및 태도 (17)

현재 학부생에게 가장 잘 길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묻는 질문에서 1순위가 가치관 및 태도(39%), 창의성(27%)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는 리더십(29%), 대인관계능력(28%), 3순위 역시 리더십(29%), 대인관계능력(25%)으로 응답하였다. 즉, 설문에 참여한 교수들은 학부생에게 지식 및 학습능력은 잘 길러지고 있으나 가치관 및 태도,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능력 등은 잘 길러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핵심역량별 길러지는 정도

도출된 7가지의 핵심역량 각각에 대하여 해당 핵심역량이 어느 정도 길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교수들은 다음<표 10>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0> 핵심역량별 길러지는 정도

핵심역량	응답자수(명) 및 응답률(%)			
	전혀 길러지지 못하고 있다	길러지지 못하고 있다	길러지고 있다	잘 길러지고 있다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0 (0)	16(10)	99(63)	43(27)
논리적 사고력	1 (1)	39(25)	110(70)	4 (4)
학습능력	1 (1)	20(13)	108(68)	29(18)
창의성	19(12)	86(59)	49(31)	1 (1)
리더십	28(18)	107(68)	23(15)	0 (0)
대인관계 능력	24(15)	107(68)	27(17)	0 (0)
가치관 및 태도	38(24)	97(61)	22(14)	1 (1)

핵심역량별 길러지는 정도에 관한 질문은 핵심역량 순위를 묻는 질문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학습능력에 대하여 80%이상의 교수들이 길러지고 있거나 잘 길러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치관 및 태도,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은 80%이상의 교수들이 길러지지 못하거나 전혀 길러지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 기타

도출된 7가지 학부생의 핵심역량에 대하여 단대별 혹은 교직경력별로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단대별로 교수들의 견해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16개의 단과대학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직업준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7개(간호대, 약대, 법대, 수의대, 의대, 사범대, 치대)의 단과대를 전문대(professional school)로 묶고, 나머지 9개(인문대, 경영대, 생활과학대, 미대, 자연대, 음대, 공대, 사회과학대, 농생대)를 기초대로 분류하여 두 집단에 따른 학부생의 핵심역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핵심역량이 길러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각각 독립집단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핵심역량의 적절성과 핵심역량 각각의 길러지는 정도에 관해 두 집단, 전문대(professional school)와 기초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직경력에 따라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적절성과 길러지는 정도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해 보았다.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7가지 핵심역량에서 재직경력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교수의 재직경력에 따라 현재 각 핵심역량이 길러진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에서도 7가지 모든 핵심역량에서 재직경력에 따라 길러진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엇이며, 현재 잘 길러지고 있는 핵심역량과 잘 길러지지 않고 있는 핵심역량은 무엇인지를 교수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능력,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가치관 형성 및 태도가 도출되었고 가장 중요하게 길러져야 하는 핵심역량으로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창의성, 가치관 및 태도, 논리적 사고력 등이 제시되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유현숙외(2002)의 연구에서 제시된 고

등교육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입시위주 교육의 부작용과 개인주의적인 풍토가 만연한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나 가치관 및 태도 등과 같은 핵심역량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교수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하였던 교수들 대부분은 초점집단면접 결과 도출된 7가지 핵심역량이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하였던 교수들은 서울대 학부생들은 학문적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공분야의 지식과 창의성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학부생에게 가장 잘 길러지고 있는 핵심역량으로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능력, 논리적 사고가 제시된 반면, 현재 학부생에게 가장 잘 길러지지 않고 있는 핵심역량으로는 가치관 및 태도,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능력이 제시되었다. 핵심역량별 각각 길러지는 정도도 살펴보았는데 핵심역량의 순위결과와 유사하였다. 7가지 핵심역량 중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학습능력은 잘 길러지고 있으나, 가치관 및 태도,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능력은 잘 길러지지 않고 있다고 교수들이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교육을 통하여 개발되는 생애능력의 정도를 분석한 김안나의(2002)의 연구결과와 다소 유사하였다. 김안나의(2002)는 대학생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은 잘 길러지고 있으나,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잘 길러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교수들의 소속과 재직경력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나, 도출된 7가지 학부생의 핵심역량에 대하여 단대별 혹은 교직경력별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현재 대학 전반에서 실용주의 혹은 역량중심 담론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전통적으로 자유로운 학문 탐구를 실시하고 기초 연구를 수행하며 최고의 지식과 지식인을 양산하는데 힘쓰는 상아탑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30년간의 양적팽창에 따라 대학은 점차 보편화되어왔고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 속에서 대학 안팎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김안나 외, 2002; 유현숙 외, 2002). 소위 대학 졸업장만으로는 지구촌화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사회적·개인적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게 되었다. 대학 4년 동안 진로를 준비하고 경력을 쌓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인재에 대한 요구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더욱 거센 듯하다. 우리나라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므로 대학이 책무성을 수행하고, 사회 변화를 주도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배출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요구와 지식기반사회에 따른 다양한 사회 변화가 맞물려 대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육성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도 대학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공교육의 부실, 사교육의 증가, 혼란스러운 대입 정책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대입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이라는 관문에 들어선 학생들 중 몇몇은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적성이나 흥미에 상관없이 입학한 학생의 경우는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등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부작용이 대학교육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은 여전히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효율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교육체제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제한점이 많다. 대학에서는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부나 학과라는 틀 속에서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효과적인 시도를 실시하는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덧붙여, 대학교육에서 지식이나 지적능력 향상에만 치중하는 경우 대인관계 능력, 리더십, 가치관 및 태도와 같은 핵심역량들이 대학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육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사회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가치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 등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대학교육을 통해서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초점집단면접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얻어진 이상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제한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핵심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기업체 인사담당자, 학부모, 대학생 등의 관점이 포함되지 않고, 단지 교수들의 관점에서만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상황에서 서울대가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용이한 접근성에 기인하여 서울대를 사례로 하여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보다 많은 수의 대학들, 예를 들면 국공립·사립별, 수도권·지방권역별 대학들을 포함하는 연구를 통해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대한 일반화를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안나, 이병식, 장수명, 박남기(2002). 생애능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질관리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김안나, 김남희, 김태준, 이석재, 정희옥(2003). 국가수준의 생애능력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 박보영(2008). 역량기반 치의학교육의 개념과 교육철학적 의미에 대한 고찰. 직업능력개발연구, 11(1), 215-235.
- 소경희(2006). 학교지식의 변화요구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24(3), 39-59.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손민호(2006). 실천적 지식의 일상적 속성에 비추어 본 역량의 의미: 지식기반사회? 사회기반지식. 교육과정연구, 24(4), 1-25.
- 오현석(2007).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관과 쟁점 분석. 경영교육논총, 47, 191-213.
- 오현석(in progress). 중등학교 교육에서의 생애능력에 관한 연구.
- 유현숙, 김남희, 김안나, 김태준, 이만희, 장수명(2002).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송선영(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연구 III. 한국교육개발원.
- 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병식, 최정운(2008). 다층모형을 활용한 대학생 핵심능력 개발의 영향요인 분석: 대학교육과정과 대학 특성 변인의 영향. 한국교육, 35(2), 243-266.
- 정철영, 나승일, 서우석, 송병국, 이종성(1998). 직업기초능력의 영역분류 및 하위 요소 추출. 직업교육연구, 17(2), 15-38.
- Delamare Le Deist, F. & Winterton, J. (2005). What is compete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8(1). 27-46.
- DeSeCo(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Retrieved October 25, 2008 from <http://www.oecd.org>

- Grant, G. (1979). Implications of competence-based education. Grant, G. Elbow, P., Ewens, T., Gamson, Z.(Eds.) *On competence: a critical analysis of competence-based reforms in higher education*. CA: Jossey-Bass Publishers.
-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Rychen, D. S. (2002). Key competencies for the knowledge society. Education lifelong learning and the knowledge economy, conference in Stuttgart, October 10-11.
- Tresch, R. (1990).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types and software tools*. NY: Falmer.
-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297-333.

* 논문접수 2009년 5월 1일 / 1차 심사 2009년 5월 10일 / 2차 심사 2009년 6월 22일 / 게재승인 2009년 6월 26일

*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학업상담을 위한 학습전략 프로그램", "청소년 학업상담", "학습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등이 있다.

* e-mail: dikimedu@snu.ac.kr

* 오현석: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졸업하고, 교육부 교육행정사무관을 역임 하였으며, 미국 미네소타대학 인적자원개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e-mail: ohhs@snu.ac.kr

* 송영숙: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하고,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e-mail: songhrd@snu.ac.kr

* 고은영: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 및 임상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특수교육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eykoh@snu.ac.kr

* 박상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desire02@snu.ac.kr

* 정은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다.

* e-mail: imdang2@snu.ac.kr

Abstract

Exploring students' core competencies in higher education from professors' perspectives: A case stud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Dongil Kim** · Hunseok Oh** · Youngsook Song***
Eunyoung Koh**** · Sangmin Park**** · Eunhae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professors' percep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even core competencies of SNU students were drawn. The seven core competencies were knowledge and skills in one's academic area, learning ability, creativity, logical thinking skills, interpersonal skills, leadership, and values and attitudes. Next, the professors who had responded to the online questionnaire perceived knowledge and skills in one's academic area, creativity, and values and attitudes as the most important core competencies among the seven ones. Also, the professors perceived that knowledge and skills in one's academic area, learning ability, and logical thinking skills among the seven core competencies were raised well, whereas values and attitudes, interpersonal skills, and leadership were raised poorly. Overall, fostering the core competencies of SNU students through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s important and necessary.

Key words: higher education, core competenc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BK21 Academic Leadership Institute for Competency-based Education/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Senior Researcher (Corresponding Author), Korean Human Resource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0-1 602 San 56-1 Shilim-dong Kwanak-Ku, Seoul, Korea, 151-748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